

300명
이
미남 구명비서, 가희용사.
소 H
3rd
박재현의
춤

Stories of them from the 63rd Ward

63

아니오

그들의 이야기

2010. 10. 7 목. THU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P M . 7 : 3 0

완무의도 Intention

6 병동 3

+ 그들의 이야기 +

군대 제대하기 두 달 전, 정신병을 앓은 후임을 위해 서울 군부대에 보 호대원으로 한 달가량 같이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12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 중 한명이 나의 후임이었다. 내가 보았던 11명의 환자들은 미쳤었고, 그 중 한 명은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난 무척이나 궁금했었다. 멸절한데, 왜 이곳에 있는지..... 나와 친했었고, **나와 대화했고, 나와 같이 행동했다.**

어느 날..... 궁금한 나머지 그 곳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는 날 붙들고 어디론가 갔었다. 그 리곤 살짝 나에게 귀뜸을 해 주었다. "당신이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11명은 너무나 멸절한 사람이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은 정신병자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 라고.....

머칠이 지났는지 그 병동엔 큰 사건이 일어났다. 11명 모두가 같은 발작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평 한 듯 한곳만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한 명..... 무서웠다.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온 몸이 돌아갔다. **"이런 게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미쳤다고 생각한 11명은 이런 모습을 보며 언제 그랬나듯 압전한 순한 양이 되어있었다. 그는 정말 미친 것이었다. 나 역시 할 말을 잃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은 없다...
아니 정답은 없다.** 그 곳에 보는 우리는 미쳤지만 그 안에 보는 그들은 **우리가 미친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누가 미친 것이고, WHO...)

이 작품...

뭔가 재미없이 아주 지루 할 듯...

끝나기 전 모두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재현 S 지하 연습실에서.....



한국의 춤 측면에서 다양성이라는 별종(?) 불협화음 나타남

기막힌(?) 남지 박재현의 <그 녀석 = Crying>은 이번 공연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작품이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자남자의 모습을 통해 성장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하나 보다. 보라색 가발과 원색의 하이힐을 신은 박재현은 그의 각진미를 비롯해서 영상과 소품, 세트, 라이브연주 등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키치적 색깔의 무대의 초반 난해함으로 중반이후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작품을 보았을 때, 제 1회 안무가 집중육성 그러나 이번 사업목표와 결과물 모두를 보았을 때, 제 1회 안무가 집중육성 지원사업에서 박재현이 목소리를 내어 주목을 받았으니 알 수 없으나 세상을 의 무용가 자신의 한국 춤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불협화음(?)을 향해 30분간 생각하며, 그가 아닐까 생각해보자. 무명을 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의 미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년 사업에는 더 참신하고 완성있는 안무가들이 육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춤과 사람들 김예림(2008. 2) -

그의 장난스러운 표현들은 슬퍼도 울지 않는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다.

“박재현”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그의 대화 방식이 낯설어 서 관객은 대답 없이 고요했다. 그러다가 점점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대단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장면이 바뀔 때 마다 관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 많은 표현들은 그가 과정을, 동 혹은 그가 슬픔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도 섬세한 소품과 감정의 표현이 작품과 무대 작과 작품의 흐름, 또한 어린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곳곳에서 느껴졌다. 또한 어떤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감정표현도 함께 보였다. 작품의 제목처럼 그 녀석은 울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 것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너무 사소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루스트의 책을 재미있게 풀어 놓은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다. 그의 장난스러운 표현들은 슬퍼도 울지 않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

- 글. 이은진 기자. NEWSTAGE -

리뷰



뚜렷치 않음에 연연하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이되 그 이면에서 응어리가 앙긴 존재를 느끼게 한다. 앓은 탓에 무대 위의 다양한 기표들, 일테면 젠더 비틀기, 승용차, 매달린 변호관, 바닥의 짐박이 등등이 지시하는 기표는 뚜렷치 않다. 뚜렷치 않음과 질서의 부정이 핑크스타일의 특 성일 수 있고 또한 뚜렷치 않음에 연연하지 않 는 것이 이 작품의 한계인 반면에 미덕으로 꼽 힐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하자. 이런 산개된 양 상의 펼쳐짐 속에서 방향이나 쉼이 지 못함을 일관되게 고수함으로써 '크라잉'은 풀릴 가망 성이 보이지 않는 응어리, 사회 집단 속에서 실체가 떠도는 그들의 응어리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글. 무용평론가 김재현
그 녀석 = Crying' 中 -

최성민 + 최성은 + 박재현 Actor 권철 + Guitar 정성욱 + 출연자 Dancer 권경미 + 안진희 + 김영은 + 양정인 + 박인영
 조현배 + 서한나 + 최우석 + 김동석 + 김고운



그들
 그리고
 그들의 천사들

Them
 and
 Angels of them

Choreographer Park Jae Hyun

박재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과 수료

2007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 선정 -

안무가 집중육성사업 프로그램 수혜자

현)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부산예술고등학교 출장 / 동양대 출장

2000 KBS 부산무용콩쿠르 대상입상

2006 한·일 서울 씨어터 제로 주최 댄스-

2000 페스티벌 "경희운다" 안무 및 출연

2008 서울 아르코 대극장 "그 녀석=Crying" 안무 및 출연

2009 서울 물레 아트 페스티벌 "경희야" 안무 및 출연

2009 제3회 세계 토크 대회 한국 대표 및 무용부분

은메달(준우승) 수상 "그대 그대 그대"

2009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극장 -

두 번째 개인공연 -

"셋 빨간 거짓말" 안무 및 출연

